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4.(금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6. 24.(금) 08:30
담당 부서	정보고객지원국 정보관리과	책임자	과 장 양기성 (042-481-5134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민 (042-481-3570) 주무관 이현지 (042-481-3400)

특허정보검색서비스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듣는다

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 이용자를 위한 간담회 개최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(이하 KIPRIS) 이용자 간담회를 6월 24일(금) 14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<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이용자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6.24.(금) 14:00~16:00 / 특허청 서울사무소
- 참석자 : (특허청)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, 양기성 정보관리과장 등
(이용자) 기업사용자, 개인사용자, 특허사무소, 특허분석서비스업체 등

- 특허청은 2000년부터 누구나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국내외 특허 데이터를 검색하고, 심사처리상황 등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.
 -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를 활용하면 과거 신청·등록된 유사한 특허·상표·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어, 연구개발(R&D) 투자중복을 방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등록가능성을 높일수 있어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현재 연간 100만명 이상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를 방문하고 있다.
- 이용자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, 이용자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.
 - 과거에는 특허사무소 및 기업의 특허담당자가 선행기술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으나,

- 최근에는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이 증가하고, 특허·상표 신청량이 늘어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등 일반 개인 이용자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를 이용하는 비중이 확대('12년 17%→'21년 25%) 되고 있다.
 - 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쉬운 검색, 모바일에서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요청 등 이용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.
-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업 사용자, 개인 사용자, 특허사무소 등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여 쉽고 편리하게 특허데이터를 검색·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마련하였다.
- 더불어, 민간에서 특허분석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 특허분석 서비스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허 검색서비스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-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특허정보검색서비스(KIPRIS)는 일반국민이 특허데이터를 접할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라고 하면서,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허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”고 말했다.

